



통권 87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1. 15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IMF 한파속에서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한해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양심수 고난과

이땅의 더 나은 인권실현을 위해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999년, 21세기 길목에 선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랏빛 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의 고난스런 행렬도
끝내야 합니다.

햇빛 한점 들지 않는 감옥에서

42번째 겨울을 나고 있는

야만적인 현실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한걸음이 차별받고

그늘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인권을 더 나아지게 하는

확망찬 한해를 기대해봅니다.



사진은 1월 14일, 민가협 목요집회 장면

민주개혁도 민족대단결도 국가보안법 철폐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양심수 없는 사회를 기대하며 맞았던 50년만의 정권교체 1년은 실망만을 남긴채 저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좌절을 딛고 20세기 마지막 해가 될, 그렇기에 반드시 분단 극복과 더 나은 인권실현을 위해 나서야할 1999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치욕의 IMF 관리체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부당하게 고난 당하고 있는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과 헌신을 다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해벽두부터 IMF한파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원화가치와 주가가 절반으로 곤두박질하고 금리는 하늘높이 치솟고 달러가 바닥이 나는 등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국가부도상황(이는 물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정경유착 관치금융 차입경영 등 김영삼 정권의 잘못과 국제해적금융자본의 농간때문이기도 했지만)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과연 어떻게 이 경제난을 극복할 것인지 큰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한해동안을 온통 외화차입, 구조조정, 정리해고, 합병, 퇴출이니 하는 생소한 말을 들으며 고통분담 강요속에 고통전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1년은 지난 연말 무역수지 흑자가 399억달러, 가용외환 보유고 485억 달러에 환율과 주가, 금리 등 경제지표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논리에서는 일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IMF 대응책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강제편승하여 국민경제를 무방비 상태로 전면개방하고 국제금융자본에 복속되어 세계주의라는 새로운 시장 맹신주의에 휘말려 패권주의에 순응하는 구조개혁을 하면서 주체적 민족경제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국민소득은 1/3이 줄어들었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퇴출 등으로 내쫓긴 노동자들과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파산되어 일터를 잃어 잠재실업자는 300만에 이르고 그 가족까지 1000만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몇배로 늘어난 결식아동에 수천명 노숙자가 추운거리에서 떨고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이른바 IMF형 범죄가 줄을 잇고 있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자본의 자유보다 인간의 자유가 앞서야 하고 권력의 권위보다 인간의 존엄이 앞서야 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민주개혁에서 무엇보다도 먼저할 일은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선이고 그러한 잘못된 법과 제도와 정책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시키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와 양심수의 석방, 사면, 복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민족 민주열사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13 대통령 취임 경축사면과 8·15 정부수립 50돌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격이었습니다. 사면(석방)의 절대수에서도 그렇거니와 석방기준과 내용 그리고 양심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더 문제였습니다. 사상전향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또다른 양심의 자유 침해소지가 분명한 준법서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양심수 사면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점입니다. 양심수 사면은 범죄인에게 베푸는 은전이 아니고 굴복시켜 복종케하는 정복자의 행위도 아닙니다. 비록 잘못된 법이지만 실정법상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을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원상회복시키는 조치일뿐입니다. 현정권 출범 뒤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까지 678명을 잡아 가두었고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 적용이 374명(55%)이었습니다. 이 수는 김영삼 정권출범 같은 기간 구속과 195명과 국보법 적용 105명의 3.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준법서약을 쓰지 않았다하여 42년째 감옥살고 있는 우용각 노인 등 장기구금 양심수 21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넘는 양심수는 언 감방을 체온으로 녹이고 있으며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처우요강(법무부 훈령 396호(98.7.24. 개정))에 따라 재소자 처우분류에서도 급외라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새정권의 국정 목표였던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말이나 양심수로 인정, 사면을 약속한 일이나 사상전향제 부당성을 말하고 세계인권선언 지지서명을 하면서 인권법 제정을 지시한 내용들과는 하나같이 들어맞지 않는 반민주 반인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수문제 해결과 함께 민주개혁이나 민족대단결의 통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모아 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남과 북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대하는(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가주석직 폐지 등 헌법개정) 새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있었던 남북당국자 회담은 최근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말했듯이 '상호주의'라는 경직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채 결렬되고 말았지만 11. 18. 첫 출항한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비당국간 경제·문화교류는 활발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새해 첫 안보회의에서 다시 강조한 남북합의서 이행 등 당국자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라는 어감의 부자연스러움과 그 안에 품고 있는 일방적 접근방식보다는 합의서에서 밝힌 화해와 교류협력 정책이어야 하고 북을 가상적으로 하는 한·미·일이 공조할 게 아니고 7·4 성명정신에 따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공조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일간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반할 뿐 아니라 이땅을 강점하고 억압 수탈했던 제국주의 침략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민족정서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50년만의 정권교체에서 회원여러분 가장 큰 바램은 양심수 석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 6.~2. 12. 까지 양심

수 전원석방 거리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8. 6.~8. 8. 까지 '98 양심수 석방 캠페인'과 12. 12.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10에 주도적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3·13, 8·15사면이 기대에 못 미치는 큰 실망으로 끝났지만 오랜 옥고 끝에 나오신 여러 분들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한 수련모임, 역사기행, 송년모임을 주도하셨고 거르지 않고 진행한 산행에 함께하며 후원회원만이 갖는 정서와 의지로 우정을 쌓고 활동방향을 찾곤 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 있었던 민가협 어머니들이 벌이는 '양심수를 위한 한마당 장터'에 일손이 되어 주셨고 무연고 출소 선생님을 찾아 뵙고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하는 직접 활동을 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도 역시 출소 선생님들의 종합검진과 구강검진을 맡아해주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MF 체제의 어려운 살림 쪼개어 거르지 않고 보내 주신 여러분의 정성은 옥중 양심수들에게 가장 가까운 체온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회비와 특별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앓아오시던 금재성 선생님과 후원회에 큰 도움을 주셨던 주명순 선생님께서 꿈에서도 잊지않던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한채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가족과 고향을 북녘에 두고 계신 출소 선생님들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거리낌없이 가실 수 있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회원여러분!

양심수 없는 세상은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목표이겠습니다. 뒷걸음질치고 있는 민주개혁에 채찍을 가하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준법서약 폐지에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겨레끼리 가슴으로 만나 민족의 자주와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보람된 공지로 하시려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



장기수

우용각(대전 · 42년 구금중 · 71세)

양심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인권문제를 바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일년 내내 노력해오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묵(대전 · 38년 구금중 · 72세)

민가협 의 여러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홍명기(대구 · 38년 구금중 · 71세)

중요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거나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영기(대전 · 38년 구금중 · 71세)

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고한 싸움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만감의 감사와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장병락(대전 · 38년 구금중 · 66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없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양희철(광주 · 37년 구금중 · 66세)

결과가 눈에 띄게 다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서울 정가 깊숙이, 인권의 씨앗을 뿌려 뿌리내리게 했고 세계의 양심들의 가슴가슴마다에 우리의 인권의 현주소를 알렸습니다. 반향(反響)의 공명(共鳴)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선(善)의 의지(意志)의 실천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맞으시는 새해에도 인권을 위해 즐기치게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경찬(광주 · 34년 구금중 · 65세)

지난 기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신 그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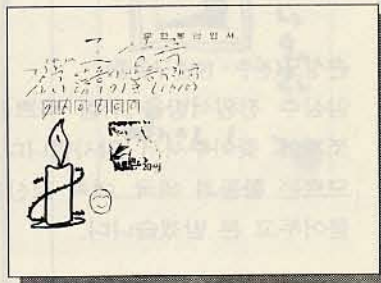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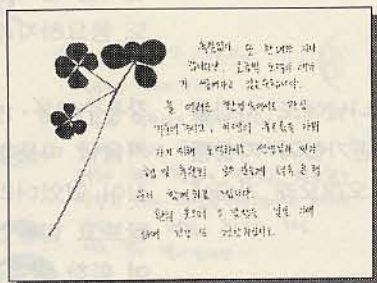
除夜

여기
프론트 分離된
결이러 나한
한 해의 흔적이
여전히 痕跡만
남아

이
한 밤
새로운
뒤 전으로 살길 歴史
안나서로 가족
각국

비제
네게가 停止를 運動
黎明을 何處
새로 가지는
靜坐의 몸짓
있네.





김동기(광주·34년 구금중·68세)

그 고약한 준법서약서만 없었더라면 그런대로 감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리라 상상만해도 여러분들의 아픈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최수일(광주·35년 구금중·61세)

우리들의 석방을 위해 거리에서 탑골공원에서 하루 감옥에서 소리높이 외쳐온 10년,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은 민가협 어머님들의 목소리 전파장대를 뚫고 저의 방까지 사랑의 손길을 뻗치니 이십대에서 육십대 청춘을 감옥에 묻은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박완규(대전·33년 구금중·70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어머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에 더욱 많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이공순(광주·33년 구금중·66세)

성탄절을 축하드리오며 한해동안 보살펴 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형식(대구·31년 구금중·70세)

경제적 불황으로 어느해 보다도 양심수 후원문제가 많이 어려웠겠는데 잘 해내시었군요. 남북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기대를 가졌는데 새로운 긴장

감이 높아지고 있군요. 인권문제로 하여 더이상 수고가 필요 없을 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양정호(대전·31년 구금중·69세)

금강산 관광의 진행을 눈여겨 바라보며 희망만 넘치는 우리 민족 대화합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은환(대전·31년 구금중·70세)

새해에도 겨레의 양심을 대변하시는 고결한 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김창원(전주·31년 구금중·67세)

갈망했던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노숙자와 범 죄자는 넘쳐나고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은 더욱 심해져서 안타깝기만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룡(광주·30년 구금중·56세)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복잡함 속에서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덕분에 금년에도 건강하고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조상록(안동 · 22년 구금중)

세계인권선언 50돌과 희망찬 1999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석방의 날 앞당겨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손성모(전주 · 19년 구금중)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바쁘신 나날에도 시간을 쪼개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가협이 지칠 줄 모르는 활동과 애국, 애족 정신을 오래오래 가슴에 묻어두고 본 받겠습니다.

신광수(전주 · 15년 구금중)

금년 한해동안 우리 양심수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인권회복을 위한 여러사업으로 적지않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어떤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으며 용감히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주(안동 · 15년 구금중)

겨울날 따뜻한 햇살 한줄같은 후원회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었을텐데... 희망의 새날, 새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 내딛습니다.

재 아

안재구(대구 · 전 경희대 강사)

지난해에는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일합시다.

류낙진(대전 · 서예가)

선생님의 헌신적인 후원과 정성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경(전주 · 노동운동가)

이젠 금강산 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이 남북간의 전면적인 내왕으로 이어질 날도 머지 않았겠지요. 모처럼 시작된 작은 걸음이 큰 길을 닦는 첫 발자욱으로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한해동안 감사드립니다.

이영석(서울 · 철거민)

주거의 평등을 가져보자고 울부짚음도 크나큰 죄가 되는지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는 저와 제 가족의 마음은 아픔으로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국민이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주거 생존권의 어려움을 겪지않는 좋은 시대가 확실히 열렸으면 합니다. 많은 양심수들의 힘이 발판이 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졌으면 하는 마음과 빠른 시일내에 양심수들이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조덕원(안동 · 인하대학원생)

올해도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덕분에 철창의 구속을 못 느끼고 알차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그 맨앞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민가협 어머니들과 회원 여러분께 고마움에 넘치는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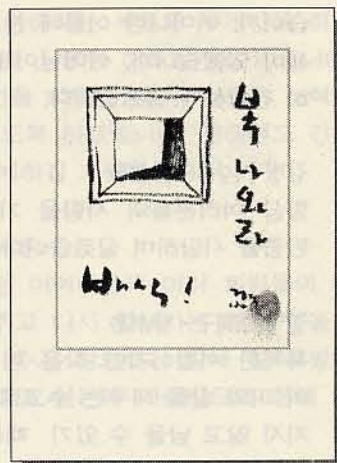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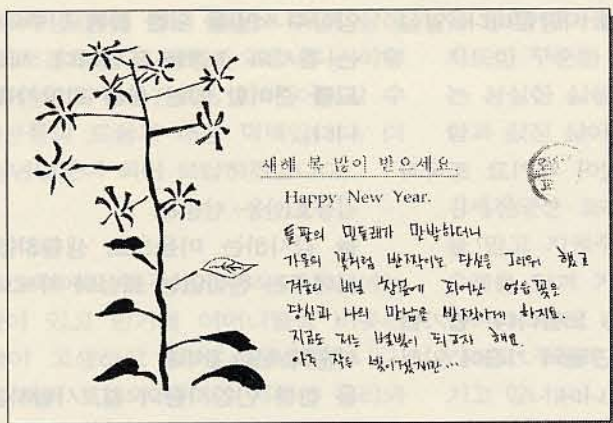
장창호(대전 · 한양대졸)

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땅의 푸르름을 가꿔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민가협 및 후원회 모든 분들께 더욱 큰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김종박(영등포구치소)

늘 관심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따뜻한 선물인지 이 겨울 감옥도 잘 견뎌낼 것 같습니다.





학 생

강성일(홍성·조선대)

99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양심의
중간에서 힘있게 전진해 주세요.

이준구(청주·전국대)

항상 저희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민가협 어르
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한숨보다는 노력과
성취감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김우현(진주·경기대)

올 한해는 바랐던 것만큼 모두 이루어내진 못했지
만, 더 커진 나를 발견하고 신념이 굳어지는 것을
느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태환(청주·전북대)

노고와 염려해 주심에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
니다.

이형준(마산·조선대)

감옥에 갇힌 많은 양심수들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주호(부산·전국대)

간힌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민가협에 감사말씀 드립
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원철(청주·강원대)

우리가 자유를 갈구하는 한 어떤 싸움도 두려움 없
이 해 나갈 수 있음을 한해를 돌아보며 결의해 보
니다. 건강하세요.

정재영(대전·인천교육대)

최루탄과 돌이 날아오는 무더위의 시위 현장에서 생
수와 빵을 건네시던 어머님들의 손길을 잊을 수 없
습니다. 좋은 세상, 양심수 없는 세상이 되기 전까지
그 수건을 벗지 않으시겠지요? 어머님 눈가의 눈물
이 마를 날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곽진욱(대구·경일대)

새해에도 건강하셔서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채찍질
을 해주십시오.

김광수(진주·서울대)

98년 한해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
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원진(강릉·전국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양심수라는 말이 없는 나라에
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영옥(강릉·인천대)

아버지란 이름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 가슴이 있겠

습니까. 어머니란 이름에 눈가에 홍수지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님, 아버지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김병수(강릉·한남대)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명기(대구·전남대)

흑독한 시절이지만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민가협 의 피와 살을 태우는 수고로 국민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고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철(마산·전남대)

이제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윤조(군산·영남대)

사람의 가슴과 머리를 묶어 놓으려 드는 제도와 권력 앞에서는 단 하루라도 무겁고 길기만한 감옥살이지만 늘 보살펴 주시는 큰 사랑을 대하면 그저 부끄러워지는 나날입니다. 어머니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 빚게될 그날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표주원(의정부·동신전문대)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남을 도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며 살겠습니다.

최진선(순천·외국어대/용인)

남은기간 신념을 더욱 굳게하고 나중에 더 큰 몫을 해내기 위해 심신을 단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찬(홍성·조선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참된 민주주의 봄을 부름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새정치, 새생활, 새제도를 준비할 99년 새해 희망가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김용호(안동·인천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민가협이 보여주는 변함없는 모범의 자세로 말입니다.

이훈희(목포·홍익대)

올 한해 인간사랑의 길, 사람사는 세상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삶 걸겠습니다.

설중호(군산·단국대/천안)

어렵고 힘든 역경의 시간이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전진합니다. 다시금 잡은손 굳게 잡는 새해, 동지들과 함께 승리의 길 가려합니다.

윤영준(홍성·강원대)

올 한해도 저희들을 위해 휴식도 거부하시고 활동하신데 대해 존경을 바치며,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나호영(장흥·부산대)

지희 옥중의 학생들도 민가협의 응원에 더욱 힘써서 열심히 살며 투쟁하겠습니다.

오재홍(경주·전남대)

올 한해 너무 고생많으셨네요. 그 노고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여기 들어온 뜻 잊지 않도록 노력 할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준(군산·건국대)

지난 한해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수기(공주·전남대)

15척 옥담안이지만 '시작'은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그리움에, 때로는 소통의 단절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게 평생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옥담을 또하나의 수련공간으로 삼아 이겨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도움과 애정 덕택입니다. 더 넉넉하고 큰 청년일꾼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문병현(안동·한남대)

민가협이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는 많은 양심수들이 있고 민가협 어머니들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새해는 토끼의 해라 토끼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와 함께 했으면 합니다. 토끼전(별주부전)에 보면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에 가서 죽음직전까지 갔다가 '토끼간은 깨끗이 씻어 별에 말려놓았다'고 멋지게 역전승하는 모습이 우리 민가협 등 민주세력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만 들어지고 준법서약서도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최영철(마산·숭실대)

밖에서 보주신 격려와 지원으로 이곳에 있는 동지들 모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굳세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전섭(의정부·단국대)

명동성당으로, 조계사로, 탑골공원으로, 교도소로, 학교로 분주히 다니시면서 애쓰고 계실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머니들과 저희들을 후원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걸음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거라 확신합니다.

김동석(의정부·충남대)

울한해 보내주신 정성과 관심에 저희 가족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양심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김은정(의정부·충북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민가협 여러분께, 불합리를 거부하는 투쟁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맨앞에서 싸워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심으로 세상은 아름답고 이 겨울은 따뜻하합니다. 다

시 한해를 보내며 더해지는 세월의 무게만큼 희망을 향한 다가섬의 깊이 또한 더해질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함과 값진 삶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김세진(군산·고려대/서창)

늘 믿고 지켜주셨던 어머니들과 여러 회원들의 손수레를 당겨 거머쥐고 다시 앞서가는 한해 만들겠습니다.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단 말에 앞서 팔다리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으로 한해 넘기고 맙니다.

이경호(공주·고려대/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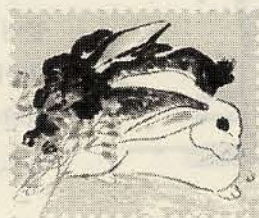
98년은 저 자신의 자유보다 이 땅의 인권발전과 민주주의 진전이 훨씬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99년 새해는 저 자신이 희망찬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고통과 갈등을 밀거름으로 '희망'을 싹틔우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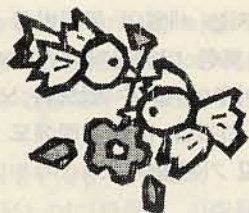
양창훈(마산·경기대/수원)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환영(안동·인천대생)

한해 내내 외진 감옥생활이었지만 늘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힘입어 마음받은 항상 기쁘고 풍요로웠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거듭 인사올려야겠네요. '꾸뻏', 내내 건강하시구요. 기묘년 새해에는 모든 양심수들에게 토끼처럼 감옥담도 풀썩 뛰어넘어버리는 자유와 건강이 허락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지녀봅니다. 늘 환한이 샘솟으십시오.





봄은 옵니다

-새해 맞으며 어르신께 절 드립니다

박 용 수 (시인 · 한글문화연구회 회장)

바람이 마른가지를 휘어잡고 흔들어댁니다.

수선스런 겨울아침

누가 오나 하고 밖을 내다보는 내 얼굴

그 얼굴 휘적 스치며 지나가는 몸살 살바람아!

그 손길 무척 차가워 목이 움츠려듭니다 그러.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릎도 쭈시고 허리도 찌든한 아픔 함께 데리고

어디어디 나들이 다니신 일 생각 나십니까?

더러는, 해가 지면 어김없이 어둠이 깔리는

어느 골짜기 멧뿌리 째에 누어계시는

그이들 떠나실 때의 모습 그리워하며

날밤 뒤척이며 보내신 일은 없습니까?

홀어져 사는 겨레 모여 살기를 바래 찾아나서던 그날

젊음의 뒤편에서 훌쩍훌쩍 울고 섰던 사랑하는 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지아비 기다리며 늙고 있을 그이

그이에게로 기울어지는 마음 흔드는 바람결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저런 덧없는 생각도 많이 해 보시겠지만 아직 멀니다.

뜻을 이루어야 할 길도 멀고

그리하여 비록 허리 굽은 몸일망정 추스려 돌아갈 날

아직 멀니다.

그렇지만 어르신께서는 하나의 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른 해, 마흔 해의 푸르른 젊음을 그 좁은 골방에 묻으시면서도

끝내 지니기를 바랬고, 또 지켜온 하나의 마음

그 마음 그 뜻 지니고 계시니 이 겨울은 오히려 느긋한 봄입니다.

허전한 늙음도 오히려 일찬 젊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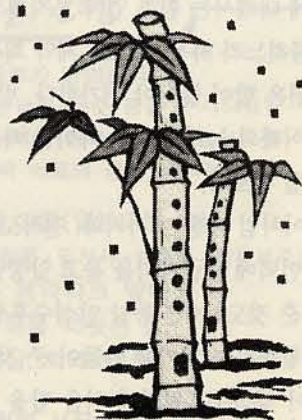
속으로 붉은 피 흐르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새해가 어느 하늘에서 떠오를 지는 내다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어둠이 거치기에는 많은 날을 더 기다려야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살아보려고 눈알을 굴리고
힘센 사람들은 더욱 큰 힘 부리려고 팔뚝을 뽐내는
이런 나라에서 아침을 기다려서는 속만 썩을 일이고
얼음덩이 모아 담 쌓으며
이웃을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울력을 모으는 이런 땅에서는
담 너머를 기웃거리는 발돋움도 헛된 일이고...

그러나 어르신이 바라는 아침은 옵니다.
기다리지 아니해도 어둠은 걷힐 것이고
하늘 열려 동틀 날 옵니다.
어르신께서 지켜오신 마음의 봄이
쨍쨍 갈라진 땅을 풀고
치솟은 얼음담 허물어뜨릴 때
월편이 펼쳐질 넓은 들 위에 새싹 돋는 봄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 오면, 저도 한 번 더 밖을 내다보겠습니다.
푹푹한 흙내 실은 봄바람 얼굴 어루만져주며 지나갈 때
밖으로 뛰쳐나와 두 활개 휘저으며 몸을 풀겠습니다.
어르신과 손 맞잡고 춤도 추겠습니다.

그런 날 오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가슴 속 젊음 따둑따둑 달래시면
그런 아침,
그런 봄
찾아 옵니다.



신현부 · 모지회 부부 회원을 찾아서

편집부



겨울이면 모두 움츠려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하던 일도 잠시 쉬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건만, 이 겨울도 거뜬히 이겨 내며 살고 있는 씩씩한 아줌마가 있다. 그리고 허튼 행동, 허튼 말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진지하

고 과묵한 그의 남편이 있다. 겨울답지 않게 따듯한 날만 계속되다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날 어느 날 저녁, 신현부 · 모지회 회원 부부의 집을 찾아 약속동에 갔다.

엄마를 닮은, 이제 세 살이 된 다인이와, 늙름한 아빠를 꼭 빼 닮은 다섯 살박이 오빠 준철이까지 한 가족이다. 맛있는 저녁 상이 앞에 있건만, 자꾸만 음식을 만지고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는 다인이 때문에 고양이 앞에 생선 지키는 격으로 그릇이며 손가락을 뺏느라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다. 그림을 좋아해 인사동의 화랑이란 화랑에 대해서는 환한 엄마 모지회 회원은 이렇게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하루가 가고, 제약 회사에 다니는 아빠 신현부 회원은 밤이 늦어야 귀가한다. 밤 12시가 되어도 자지 않고 아빠와 놀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할 정도다.

이처럼 서울 아저씨와, 전라도 끝 함평 아가씨가 약속동 언덕에 보금자리를 틀고 알콩달콩(?) 살도록 인연을 맺어 준 것도, 10년 동안 양심수후원회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활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도 모두 '산'이다. 신 회원이 양심수후원회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90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90년에 한길사에서 조정래의

소설 「태백 산맥」 완간 기념으로 답사를 주최했는데, 그 때 신 회원을 비롯한 산에서 만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음시롱감시롱'이라는 답사 기행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임의 회원이기도 했던 '권오현 회장님'으로부터 민가협 이야기나 양심수 이야

기를 접하면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양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치해 후원회에 집단적으로 가입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모지회 회원과도 이 기행 모임에서 만났다. 산에서 만나고 산에서 눈이 맞고(?) 이젠 함께 산을 오르는 부부는, 이제 같은 곳을 그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

다음은 이 가족이 만들어 가는 네 가지 색깔, 그리고 하나의 그림 이야기이다.

그림과 엑조유 - 다인이와 준철이

이 집의 자라나는 희망이다. 불이 유난히 빠알간 다인은 어디 갈 때 포대기에 업어야 하는 두 돌도 안 된 아기지만, 아들인 준철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애교로 엄마, 아빠에게 딸 키우는 재미를 쑥쑥 느끼게 해 준다.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인사도 잘 하고 씩씩한 준철이는 그림 그리기, 만들어 붙이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오빠라고 동생과 잘 놀아 준다. 준철이는 아직 꼬마지만 산을 아주 잘 타고, 산에 가는 것을 아주 신나해한다. 그림 그렇지, 산을 좋아하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새싹 같은 준철이와 병아리 같은 다인이.

블록 -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좀 소심하고, 술도 잘 안 마셨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보다는 삶의 진지와 깊이가 느껴진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책 읽으려고 휴학까지 할 정도였는데, 제약 회사의 영업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단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 보면 얼굴 안색부터 살피고 이것저것 조언해 주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인지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적성에 딱 들어맞는 일을 하면 물론 성공하겠지만, 좀 맞지 않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는 것이 바로 신 회원의 작은 생활 철학이다.

그는 늘 할 일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그리고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이는 그가 애정을 갖고 알차게 꾸려 가고 싶은 '움시롱감시롱'을 통해 주로 실현된다. 장기수 선생님들 중에 조창손, 김선명, 이종환 선생님 들은 정말로 가족같이 생각하고,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는 조창손 선생님 칠순 잔치를, 권오현 회장님 환갑 잔치를 치러 드렸다. 거창한 것보다 생활적으로 소소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절이나 좋은 날 등 특히 챙겨야 할 날은 잊지 않으려고 한다.

아내에 대한 20자평—바라는 것이나 고마운 것—을 부탁했더니 끝내 말하지 않고 회피한다. 옆에 있던 모 회원이 더 듣고 싶어했는데도, 결국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웬지 바다가 생각나게 한다.

레드 - 엄마

아이들 둘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할 법도 하건만, 모지회 회원은 참 용감하다. 아이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하며 불평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잡고 어디든 나타난다. 뱃속에 일곱 달째의 다인이를 가지고서도 보통 사람도 힘든 수락산을 거뜬히 올랐다. 게다가 청얼대는 준철이까지 업고 오르는 장관이란. 이번 역사 기행에도 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참여했다. 모 회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아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마다 않는 열정이 있다.

책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좋아

하는 것도 많고 아직은 사춘기 감성도 그대로 갖고 있다. <창작과 비평> 잡지 끊기가 미안해 몇 년째 계속 구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잘 나들이를 하는 곳은 인사동 화랑이며 서점가이다. 이제 글씨도 제법 아는 준철이는 어린 아이답게 책에 관심이 많고, 책 읽어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더 자주 가게 된다.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그림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과 안목도 어느 정도 생겼다. 시장에서 콩나물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안달하고, 자기 자식만을 최고로 키우려는 욕심만이 전부라는 아줌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짝 가시게 해 주는 건강한 삶의 모습은, 한낮의 태양 같다.

올해의 이들의 소박한 소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신현부는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고, 모지회 회원의 소원은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가져 보는 것이다. 그럴 듯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도, 정말 생활 속에서 작은 소원 하나쯤 품어 보기를.

그리고 올해 목표라면 가능한 후원회 산행에 참석하는 것이다. 물론 준철이 손을 잡고, 다인이는 업고. 이 식구가 가진 네 가지 빛깔이 어울려 앞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지……. 서로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 산을 오르되,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잊지 않을 이 가족의 아름다운 그림을 위하여 화이팅!

1월 산행

9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시나요?
우리네 살고 있는 서울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북한산 보현봉에서 서로의 꿈을 나눠봅시다.

- 언 제: 1999년 1월 24일(일) 오전 10시
- 어디로: 북한산(평창동 - 일선사 - 보현봉 - 정릉계곡)
- 모이는 곳: 평창동 북악파크 앞마당
- 준비할 것: 따뜻한 마음, 따뜻한 물,
맛난 점심, 회비 3천원

• 문의: 후원회 사무실(763-2606)

1999년 새해가 시작하던 1월 1일, 수배중인 제 아들을 비롯해 고려대생 5명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석태 변호사 접견이 끝나고 단 한 학생만 불구속으로 풀려나오고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가운데 총학생회장은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지 겨우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999년 새해부터는 국민 모두가 기대했던 만큼 IMF 경제위기도 많이 극복되고 한총련 문제도 서서히 풀리리라 기대했었는데 기대했던 인권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께서서는 인권상까지 수상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나의 막내아들 류순의 경우를 본다면 김경삼 문민정부에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되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학교로 이거리 저거리로 방황하다가 마침 연휴라서 별다른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4명과 함께 친구 집에 들어 갔다가 연행되어 장안동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중랑경찰서의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면회를 가서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같은 창살에다 입을 대고서 "어머니 이제는 걱정마세요" 하면서 다음에는 책을 넣어 주시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의 그 모습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 앞에 아물거립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되고 수배를 당하여 학문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차디찬 감방 안에서라도 책을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내 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조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괴롭고 슬프기만 합니다. 이나라 장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어 국민을 잘 살게 해보겠다는 굳은 그 의지는 누가 뭐라해도 변함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어미의 마음은 항상 내 아이의 체력이 문제가 되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 아들의 3명도 뽀빠이 흩어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제 밤도 오늘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400여명의 양심수들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조건없이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나라 이 땅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선량한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싶어합니다. 또 지킬 수 있는 법이라야 하고,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정부를 믿고 살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국민이 다같이 지킬 수 없는 법은 최악의 악법입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믿고 지킬 수 없는 천하의 악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나갈 학생들의 대표조직인 한총련을 잡아먹은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인권법 19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서는 인권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풍이니, 세풍이니, 북풍이니, 흑금성이니 하는 괴상망칙한 사건을, 엄법에 처하도록 한다면 국가의 안보의 차원에서 천년 만년이라도 존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애국청년 한총련에게 적용을 시키니, 이해가 가지않고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들구속 소식을 들은 총학생회장 아버지는 쓰러져 자리에 누워버리시고, 부총학생회장 엄마도 쓰러져 누워버리시고 모두 이 일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여의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막내 류순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을 다문 채 단식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는 우리 자손 만대의 한총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나라 이민족의 사회 경제 문화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나라 애국청년 학생들이 마음놓고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빌면서 두서 없는 사례발표를 매듭짓겠습니다.

• 이글은 류순군의 어머니가 1월 7일 목요일집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유엔 국가보안법 7조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위배” 최종결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한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제소를 한 박태훈(36세, 미국 일리노이 대학 졸)씨에게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89년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태훈씨가 통보한 사건(사건번호 제 628/1995호)을 심리한 끝에 10월 20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박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결정문을 보냄으로써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정문에서 “박태훈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7조로 처벌한 것은 인권규약 제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씨에 대해 금전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 △이사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실시한 조치 내용 △결정문의 번역 및 공개 △사법부에 이사회 결정을 통보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며 조치 내용을 90일 안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가 지난 90년 7월 10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최초로 내려진 것이다.

유엔 통보제도는 우리 정부가 가입하여 90년 7월 10일

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라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에 따라 통보하기 위해서는 제소자는 가능한 국내의 모든 구제조치들을 완료해야 하며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당사국이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단, 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도 그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는 인정된다.

박태훈씨는 지난 89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2월 22일 유죄를 선고받고(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항소하였으나 93년 5월 11일 기각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3년 12월 24일 원심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유죄판결내용은 그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유학중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청련이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국가보안법 7조 3항)라고 인정하였다. 박씨는 94년 8월 11일 이 사건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에 제소한지 4년만에 이사회는 제64차 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다.

보안관찰처분 취소판결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부장판사 최병학)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에 보안관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서울대 박사과정)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고원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 법무부는 원고 고원씨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출소후 기간이 일천하며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93년 사노맹 사건 관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되었던 고원씨는 95년 10월 만기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를 받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 국가보안법 제정 50년을 맞아 민가협 등 인권·사회 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여의도 공원내 문화마당)
 - 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발족 7주년 기념모임(기독교교회관)
2. • 정부, 한미투자협정체결과 관련 스크린쿼터 92일 축소안 마련
 - 부산 남부경찰서 용호3파출소 소속 경찰관, 학교매점 털던 10대에 총격
3. • 민가협 목요일집회 257회.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법무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주제로 법무부 규탄 풍자극(가극단 금강)에 이어 박노현 교수(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연설,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규탄연설과 김정숙 상임의장의 규탄성명 낭독이 있었음.
 - 인천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9명 연행
4.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방부 앞 집회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 광주지검 공안부는 95년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석씨등 5명의 기소내용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장 내용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이 같은 공소내용 변경조처는 96년 4월과 98년 7월에 이어 3번째로, 이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도구임을 반증하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
5. • 제3회 인권영화제 개막식(동국대)
 - 한총련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돌임
 -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보장”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열다.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2차 촉구대회 (서울역광장/민권공대위 주최)
 - 안산민주청년회 주관, ‘양심수와 함께하는 제4회 겨울맞이 그리운 이름 어머니에게 희망을, 양심수에게 자유를’ 문화공연 참가(안산 한양대 학생회관)
6. • 유가협 농성장 방문
 - 정부·여당, 인권법에 의문사 진상규명 명시하고 이를 인권위원회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하기로
 - 국민회의와 자민련, 전자주민카드 백지화하기로 하다.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3명, 영장기각으로 풀려남.
7. • 5공 전두환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을 앓아온 이길상 씨 투신자살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리서명 캠페인 선포식(명동성당 들머리/민가협 주최)
8. • 인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과 관련, 경찰청 앞에서 무더기 불법연행을 규탄하는 집회가짐(민가협, 민권공대위, 민청노회 대책위, 서울연합등)
 -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2일째 거리서명운동(명동성당)
 -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 설치” 대통령에 촉구
9. •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부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모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
 -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 석방대책위원회 주최 ‘최연소장기수 강용주 석방을 기원하는 밤’(광주 YMCA)
 - 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
 - 영국 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 인도절차 개시 결정
10. • 민가협 목요일집회 258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수요집회·목요일집회·금요일집회 매주 집회를 열어온 인권단체의 연대집회(민가협, 유가협, 정신대문

제대책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주최). 임수경의 사회로 각 단체 소개, 각 단체 대표의 공동연설에 이어 어머니의 끈질긴 힘으로 이겨낸 고통의 역사를 딛고 21세기를 열어갈 후세들의 참다운 삶을 기원하는 희망의 나무인 '인권의 나무' (동백나무)를 심었다.

- 인권만화전 및 양심수 자녀 그림 전시 시작(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역사/충점 전시)

- 광주교도소 초장기수 김동기(33년째 구금중) 선생님 면회.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여러 선생님들 건강문제 이야기 나눔(이공순 선생님은 식사를 잘 못하실 정도로 쇠약하시고 리경찬 선생님은 당뇨, 양희철 선생님은 치질수술, 이재룡 선생님은 위가 좋지 않다고).

- 전남대 병원에 입원중(826호)인 김양무 선생님(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문병.

- 광주 기독교병원(608호실)에 입원중인 김인서 선생님 문병. 뇌혈전으로 투병중.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광주지역 기념행사 참석(광주YMCA)

- 박상천 법무장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

11 • 경원대 장현구 학생 추모제 참가

- 민가협 회원들, 의정부교도소 양심수 징벌관련 교도소 항의방문

-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재구 선생면회

- 새로 이사하신 대구 '만남의 집' 으로 김종호 선생님 방문.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대구지역 문화행사(경북대)

12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10 공연(장충체육관)

- 고용 · 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중대회 동시개최하고 정리하고 중단, 부정축재재산 환수 등 요구

13 • 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14 • 경찰청, 지난 10월 전국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주요인사, 사회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해 카드로 작성하여 지방청별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 인물존안카드에 대상인물의 학력, 경력, 성질(격), 소행, 취미, 정신적 배후관계, 성향등을 적게되어 민간인 불법사찰이란 의혹을 사고 있음.

- 15 •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의 인물자료 단체자료 등 사찰활동 보도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다.

- 시민 · 사회단체들, 경찰청의 민간사찰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비난

- 16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 · 현직 경관이 관련된 남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사 선임

- 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

- 17 • 민가협 목요집회 259회. 민주노총과 함께하여 "최근 이어지는 구속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목요집회"로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여는말,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연설에 이어 조상록(78년 국가보안법 구속, 22년째 수감중)의 누이 조점순 님 사례발표, 인천대생 이환영학생의 편지낭송, 인천지역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사례발표가 끝난 다음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구속사태에 대한 규탄연설.

-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단체, 김세욱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동향 파악 작성한 인물 · 단체 자료 등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18 • 금속연맹,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없이 빅딜 통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국민회의 당사 농성 돌입.

- 19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에 대한 긴급 토론회'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전국연

- 합, 민주노총 등 공동주최)
20. •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준비위원회', 조용수 사장 묘소에서 추도식 및 발족식 열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21. •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주최 / 기독교회관)
 22. •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 양심수 자녀돕기 문제, 양심수자녀돕기 문제, 만남의 집 운영개선안, 99년 새일꾼 선임문제 등 협의.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을 찾아 뵙고 저녁식사 함께함.
 - •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씨 등,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로 긴급체포
 - • 부산동의대생 3명,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등으로 구속
 - • <후원회소식> 86호 발송
 23. •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해고통보 받아
 24. • 민가협 목요집회 260회. "산타 할아버지,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 바로 우리 아빠예요!". 썰매를 타고 선물을 가지고 온 산타(가극단 금강 열연)와 양심수 자녀들이 함께 펼치는 성탄특집 목요집회. 장창호(92년 국가보안법 구속)씨 딸 장명지가 아빠에게 보내는 성탄카드 낭독, 민준홍(97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민경우씨 아들)의 노래, 채주희(11세)가 감옥에 있는 할아버지(류락진,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가 보내온 편지 낭송에 이어 가극단 금강과 양심수자녀들의 캐롤송.
 25. •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 결정
 26. •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조국통일 기원 송년한마당(민권공대위, 전국연합, 한양대 총학생회 주최/ 한양대 노천극장)
 27. • 양심수후원회 '98송년모임.
 - •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줄속적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기업 노동조합 결의대회' 열어
 28. •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초청, 인권·사회단체 간담회(여의도 호텔). 현 정권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에 대한 각 부분별 비판과 개선책 논의.
 29.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찬성 10, 반대 1, 기권 5로 가결
 30. • 민가협 운영위원회. 인권법 공추위, 국보법 국제캠페인등 보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평가.
 - • 4월혁명연구회 송년모임(수원회관 지하식당)
 - • 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
 - • 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낸 98 실업자 대행진을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 • 낙성대 만남의 집과 연고가 없는 출소장기수 선생님 11분에게 생활지원금 드림
 - • 양심수(기결 117명, 미결 158명)에게 영치금 발송
 - • 양심수(장창호, 이화춘, 최호경, 민경우) 자녀에게 미국수도교회 자녀돕기 성금 지원
 31. • 민가협 목요집회 261회. "1998년, 한해동안 발생했던 인권침해 보고대회". 임수경의 사회로 김정숙 상임의장 여는말, 1998년 한해동안 발생했던 인권침해 피해자들 사례발표(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 하영준 사건, 한총련 구속·수배사건, 보안관찰법 피해자 이해정 사례)에 이어 조국과청춘의 노래공연.
 - •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추구를 위해 여의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협과 전국연합, 민가협, 출소선생님 함께 송년모임 갖다.

회원 소식

■ 이정규 운영위원이 98년 교통사고 후유증 (어깨수술)치료를 위해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 522호실(958-2192)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음시룡 감시룡 98년 모교지가 12월 26일 흥제동 현대유치원에서 열려 99년 으뜸일꾼으로 모성룡 회원을 뽑았으며 98년 회비잔액 5십만원을 복벽동포돕기, 양심수후원사업에 보태기로 결정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 양심수후원회 98년 송년모임이 12월 27일, 후원회원, 민가협 어머니들, 출소선생님들, 사회단체 손님 등 170여명이 함께 모여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1부 순서는 이기욱 부회장의 사회로 오신분들 소개와 선생님께 드리는 시(박용수 님 지음)를 김언경 회원이 낭독했으며 어머니들께 드리는 글을 권용보 회원이 낭독했습니다. 이어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 권낙기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님의 건배선창으로 마치고 2부는 모성룡 회원의 사회로 흥겨운 한자리를 가졌답니다.

■ 12월 4일, 음성꽃동네로 류한욱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었더니 수염과 머리가 많이 자라 이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안부를 물으시고 모두 건강하시라는 인사 전해달라하셨습니다. 최진섭,

변의숙, 함정희 님이 함께했고 이정태 회원이 애쓰셨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인숙 서울지역본부 조직부장 등 병원노련 간부 12명이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 준비해온 여러 만남 음식을 선생님들과 나누며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범립 회원이 12월 20일, 혼례를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5년형의 만기를 다살고 출소한 은수미님이 정영훈님과 1월 16일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한총련 활동과 관련 1년6월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장창준(홍익대) 학생이 만기를 다채우고 12월 6일, 서울농대 학생회장을 지내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박훈동 학생이 1월 12일 만기를 다채우고 출소했습니다. 민가협 회원들과 학생들이 마중 다녀왔습니다.

■ 사노맹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복역중이던 한정덕씨가 가족과 동료 등 100여명의 마중을 받으며 12월 10일 만기출소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배규선 회원이 백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때 큰 성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 광운대 졸업생·재학생들이(이미형 외 8명) 보라색수건의 민가협 어머니들께 아주 이쁜 보라색 장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약대 졸업생 모임에서 양심수 겨울나기에 보태달라며 95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나라사랑청년회 회원들이 지난 12월, 신촌 일대에서 일주일동안 양심수 겨울나기 모금 활동을 해 성금 삼십이만원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지인엽(부천시 심곡본동)
김선아(광주시 봉선1동)

황해평(성북구 종암1동)
김주명(고양시 행신동)

김승규(고양시 주엽2동)